

나주시, 수도권 투자유치 행사 이어 '글로벌혁신특구' 포럼 개최

나주시는 최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에너지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와 연계한 중압직류 배전(MVDC)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기조강연, 전문가 4인의 주제 발표와 문재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김동욱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여하는 6인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중압직류 배전(MVDC)은 기존 발전소에서 전력변환소를 거쳐 수용가까지 AC(교류)로 송배전하던 것을 중간 전력변환소를 거치지 않고 DC(직류)로 변환해 송배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기존 교류(AC) 전력 계통망 포화, 계통접속 지연, 출력제한 등의 문제점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도심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 추세를 해소해줄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포럼 기조 강연은 김병국 나주시 에너지육성팀장의 '글로벌 혁신특구 취지 및 혜택', 이규섭 서울대 교수의 'MVDC기술의 중요성과 국내 현황', 정홍주(주)효성 HVDC팀장의 'MVDC 컨버터스테이션 개발현황', 유도경 ㈜그린리엔에스 대표의 'MVDC 산업과 전남 에너지기업의 준비', 김강식 한전 신기술연구소장의 'MVDC 사업화 추진현황'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차세대 전력망기술

MVDC'를 주제로 기술적인 중요성과 국내 적용 효과, 컨버터 스테이션 기술개발 등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또 직류부하 증가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MVDC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산·학·연·공 연계 발전방안도 논의됐으며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MVDC 관련 질의응답도 활발히 오고갔다. /김동철 기자

화순군, 제1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도곡면 번영회(회장 차주성)가 '202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의 동반축제'로 4월 20일, 21일 이틀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제1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곡면은 고인돌 역사·문화자원 이외에도 미니파프리카 등 특화농업이 발달해 지역의 소득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도곡 번영회는 도곡면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 6개 단체와 협력해 축제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 도곡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 홍보 목적의 ▲농특산물 시식회 ▲비빔밥 퍼포먼스 ▲떡매치기 체험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번영회는 '제1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를 통해 도곡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고 맛 좋은 고품질의 우수 농특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저

렴하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다오소 1천원 - 농산물 1만세트 ▲소고기 부위별 할인 판매, 쌀 500g 무료 제공 ▲부스 방문객 600인 무료 비빔밥 제공 등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화순의 대표 축제인 고인돌 축제와 동반해 파격 형태로 시도되는 도곡의 지역축제가 성황리에 마치게 되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상당한 연쇄(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수진 도곡면장은 "도곡 농특산물 축제를 통해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볼거리 및 먹거리를 충족시키고, 고인돌 (봄·가을꽃) 축제와 더불어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가 더욱더 매력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 준비에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장성군, 한글 공부 열정 화제

장성군이 운영 중인 성인문해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어른신이 있어 이목을 끈다.

주인공은 삼서면 외동마을 나이순(81세) 어른신이다. 나 어른신은 지난 한 해 동안 한글 공부를 위해 매주 두 번씩 동화면 송계경로당 한글교실에 출석했다.

집에서 경로당까지는 10리 넘게 떨어져 있지만, 어른신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주위의 걱정과 만류에도 나 어른신은 "평생 모르던 글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니, 이전 텔레비전 글씨도 읽는다"며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데 10리 길이 대수겠나"고 답하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참석이 어렵게 됐다. 지난 겨울, 미뤄뒀던 무릎 수술을 받는 바람에 더 이상의 '10리 길 출석'은 무리였다.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장성군은 나이순 어른신처럼 배움의 의지가 있음에도 학습 장소가 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선물을 마련했다. 문해강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하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새로 열었다.

도입 초반이지만 교육장소가 멀어 참여를 망설였던 주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글 수업을 받지 못해 낙담했던 나이순 어른신이 미소를 되찾았다.

/유광중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영광군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영광의 아름다운 관광지에서 건강 걷기 노인권익증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노인복지관 노인권익증진캠페인 진행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영광군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영광의 아름다운 관광지에서 건강 걷기 노인권익증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영광군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동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

인은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강화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건강 걷기 운동 프로그램은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해 영광군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직접 영광의 관광지(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및 물멍쉼터) 체험을 했으며, 이를 통해 아름다운 수변 풍광과 함께 걷기 운동을 즐기며, 영광을 홍보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건강 걷기 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활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률 기자

담양 쌀, 체코 유통전문업체와 수출 계약

프랑스·오스트리아에 이어 연이은 대유럽 쌀수출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쌀 수입 및 국내 소비량 감소로 산지 쌀값의 연이은 하락에 농민과 관계기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담양군의 연이은 대유럽 쌀수출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담양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체코 아시아인 식료품 유통전문업체인 'SHINFOOD(대표 최준정)'와 수출 계약해 현지 판매 전용 브랜드인 운수대통 담양쌀 20톤을 4월 1일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지난 3월 18일 프랑스·오스트리아 수출 초도 물량 이후 두 번째 대유럽 수출 물량으로 1년 간 매달 20톤을 수출해 현지 한

식당 등에 판매될 예정이다. 담양 쌀은 과거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 및 1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8회 대상, 5회 최우수상을 받은 명품 쌀이다. 특히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미주, 유럽에 300톤을 수출하는 등 국내·외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2022년 준공한 담양군 통합RPC는 유럽 농산물 유통단계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인 농산물우수관리(GAP)관리시설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지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수출 최적화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농산물 수출 확대 등 판로 다변화를 통한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성진 기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무안군 의회·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